

# '예향 남도' 예술로 먹고 살기 힘들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2015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라·제주 지역 예술인이 타 지역에 비해 수익 등이 열악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역미술관에서 진행된 청년작가 전시 모습.

지난 2005년 지역 미술대학을 졸업한 A(34)씨는 전업작가를 꿈꿨었지만 약 10년간 다른 직종에 종사했다. 지역에서 젊은 나이에 전업작가로 살아가기에는 소득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잠시 미술작가에 대한 꿈을 접고 초등학교를 상대로 방문 미술지도를 하거나 미술관에서 큐레이터 일을 하기도 했다. 지난 2014년 다시 전업작가로 활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작품 판매 만으로는 생계유지가 힘든 현실이다.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미술 강의를 하는 등 외부 활동도 많이 하고 있다.

### 불규칙한 수입 가장 고통

A씨는 "매년 미술대학을 졸업한 사람 30~40명 중 4~5명 정도만 전업작가로 살아가는 현실이다"며 "대부분 전공과는 무관한 가게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 많다"고 말했다. 호남권(제주 포함) 예술인 2명 중 1명은 겸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규칙하고 낮은 소득으로 인해 순수 예술활동 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2015

### 문화부 조사, 2015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호남권 예술인 예술활동 수입 年 826만원 ... 전국 최저  
낮고 불규칙한 수입으로 절반이 전공과 무관한 일 겸업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호남권 예술인 중 47.8%(전국 평균 50%·서울 59.9%)만 전업 예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14개 예술분야(문학·미술·공예·사진·건축·음악·대중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방송·만화·기타)에 종사하는 예술가 5008명(호남권 653명)을 1대1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조사 기준시점은 2014년이다.

겸업을 하는 대부분 이유는 소득 때문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남권에서만 낮은 소득(41.4%) 보다는 불규칙한 소득(47.9%)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울 지역에서 겸업 이유로 낮은 소득을 꼽은 사람은 53.7%이고 불규칙한 소득은 21.9%다. 경기도권은 68.8%와 17.6%, 영남권은 50.7%와 28.9%, 충청·강원권은 45.4%와 38.1%였다.

예술인들이 1년간 벌어들인 비용을 살펴보면 호남권은 평균 4830만원으로 다른 지역(서울 4611만원·경기도권 4894만원·영남권 4560만원·충청·강원권 4511만원)에 비해 낮은 비용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중 예술활동으로만 벌어들인 수입은 826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819만원, 경기도 1772만원, 충청·강원권 1052만원, 영남권 972만원 순이다.

### 미술·문학 분야 수입 낮아

불규칙한 수입으로 인해 겸직 활동이 가장 많은 지역 현실이 간접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각 장르별 연 수입은 건축이 483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송 3957만원, 만화 2002만원, 영화 1876만원, 음악 1337만원, 연극 1285

만원 순이다.

특히 무용(861만원), 사진(817만원), 미술(614만원), 문학(214만원) 등은 연 수입이 1000만원을 밑돌았다

### 48%가 4대보험 가입 못해

지역 예술인 중 약 40%가 미술(26.2%), 문학(12.3%)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연수입이 적은 현실이다.

특히 1년간 예술작품 발표 횟수는 서울 6.8회, 경기도 6.2회, 충청·강원권 5.9회에 비해 호남권은 5.2회로 가장 낮았다. 1주간 예술활동에 투입하는 시간도 가장 낮다. 호남권은 평균 8.2시간으로 전국 평균 14.2시간, 서울 17.8시간, 경기도 15.2시간, 영남권 13.2시간, 충청·강원권 12.6시간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다.

지역 예술인들의 열악한 현실은 4대보험 가입에서도 드러났다. 미가입자를 살펴보면 호남권은 48%로 전국 43.2%, 서울 40.7%, 경기도 46.6%, 경상권 45%, 충청·강원권 34.5%가 4대보험 혜택을 못받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아름다운 유·스퀘어 사진 공모전' 30일까지 접수

유·스퀘어문화관이 9일부터 30일까지 '제 7회 아름다운 유·스퀘어 사진 공모전'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나의 친구를 소개합니다'이다. 학창시절 친구, 집대 옆 곰인형, 반려동물, 오래된 라디오 등 누군가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누구든 나이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다. 핸드폰 사진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접수가 끝나면 입상작들은 2층 유·테라스 야외갤러리에 전시될 예정이다. 사진은 최우수 2점, 우수 4점, 장려 6점, 참가상 14점 총 26점을 선정

한다.

입상자 전원에게는 뮤지컬 '달을 품은 슈퍼맨' 초대권과 문화상품권, CGV영화 관람권 등이 주어질 예정이다. 작품은 개인당 5점까지 응모 가능하며, 디지털 이미지(JPG, JPEG)형식 파일만 제출할 수 있다.

접수는 유·스퀘어문화관 홈페이지(www.usquareculture.co.kr)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은 후, 사진파일과 함께 담당자 이메일(u\_culture@naver.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062-360-843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예술의 전당 공연작품 대형 스크린 통해 무안 남도소리올림터에서 무료로 본다

### '마술피리' '지젤' 등

전남문화예술재단은 오는 6월까지 무안 남도소리올림터 공연장에서 예술의 전당 유명 공연작품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무료로 선보인다.

이번 상영은 예술의 전당 공연 실황을 영상으로 편집해 스크린을 통해 감상하는 공연영상화 사업 'SAC on Screen' 공모사업에 선정돼 마련됐다. 상영회가 진행되는 남도소리올림터는 10대 이상의 4K카메라로 촬영한 초고화질 영상을 일반 멀티플렉스 영

화관보다 1.5배 큰 대형스크린(15m×8m)으로 감상할 수 있어 생생한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상영작은 유니버설 발레단의 '지젤'(9·30일), 가족 오페라 '마술피리'(4월 13·27일), '베를린 필하모닉 카메라탄' '춤을 말하다'(6월15일·29일) 등이다. 상영 시간은 오후 7시다. 무료 관람. 한편 광주문화재단도 매일 두차례씩 'SAC on Screen' 프로그램을 상영하고 있다. 문의 061-680-58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유니버설 발레단 '지젤'

### 광주전남작가회의, 소설창작반 수업 10일 개강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조진태)가 2016년 소설창작반 수업을 10일 개강한다. 광주시청 2층 사회복지과(민원실 2층)에서 총 14강에 걸쳐 매주 목요일(오후 7시)에 진행되는 이번 수업은 광주여대에 재직 중인 작가 채희운(사진·광주일보 신춘문예) 교수가 강의를 맡는다. 지난해부터 강의를 진행해오고 있는 채 교수는 이번에도 창작 실기 위주로 예비 작가들을 만날 예정이다. 채 작가는 1989년 한국일보 신춘문



예에 단편 '어머니의 저녁'이 당선돼 등단했으며 소설집 '한 평 구 흡의 안식', '별뿔별 해는 밤', 장편 '소설 쓰는 여자' 등을 펴냈다. 한편 수업은 합평과 개작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수강 신청은 합평반을 의향하는 희망자로 제한한다. 수강료 15만원. 문의 062-523-7830, 010-2680-1680.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바퀴달린 학교' 등 문화예술교육기관·단체 4곳 선정

#### 광주문화재단, 창의예술학교

#### 4~11월 교육프로그램 진행

광주문화재단이 '2016 창의예술학교'를 이끌어 나갈 지역 문화예술교육기관·단체 4곳을 최종 선정했다. 북구문화의 집 '바퀴달린 학교', 동구

문화원 '오디세이예술학교', 문화약방 '재미마중 노리학교', 마당집 '바람이 머무는 마을학교' 등이다. 선정기관·단체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각 25차례 내외, 2개 이상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해 진행한다.

'바퀴달린 학교'는 주말건축, 땅과 예술, 놀이기구 팩토리 등 교육프로그램을,

'오디세이예술학교'는 지역 인물과 설화, 문화자원을 토대로 생생 인물오디세이와 콘텐츠창작오디세이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재미마중 노리학교'는 반짝반짝 골든에이지, '놀이 찾는 아이들-함께 하는 어른' 등 프로그램으로 지역문화와 놀이, 미술이 어우러진 예술학교를, '바람이 머

무는 마을학교'는 재개발지역인 신가마을에서 청소년과 주민이 함께하는 똑딱 똑딱 예술창고와 조물조물 마을을 운영한다. 각 기관·단체에게는 2000여만원이 지원되고, 총괄사무국을 운영하는 '북구문화의 집'에는 18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2016 창의예술학교'에 참여할 수강생은 각 단체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다. 문의 062-670-576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복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외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복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권(복성 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떡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별군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농가대상)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